

입당 송 |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
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제1독서 | 1사무 26,2,7-9,12-13,22-23

화답 송 |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
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
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
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

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
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
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 루카 6,27-38

영성체송 |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날날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 우리는 참 가톨릭적인 사람

김한수 토마스 신부 | 종로성당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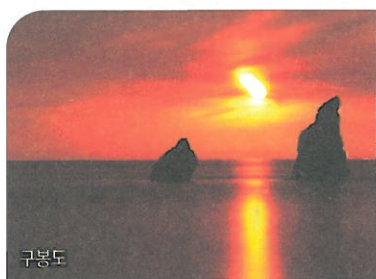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황금률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들이 전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일 뿐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가치 그리고 윤리를 긍정하는 모든 이에게 행위의 근원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하는 평범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며 간직하려는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보편성을 지닌 황금률은 시간, 장소, 문화, 민족의 한계가 없습니다. 기간 한정, 지역 한정, 인물 한정 없이 소중한 가르침으로 지켜져 왔습니다…만, 그 실현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현실적 가르침이 논어 공야장(公冶長)편에서 공자와 자공의 이야기로 전해 옵니다. 자공이 말합니다.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도 남에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야,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이 글을 발견하고 또 다른 보편성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황금률에 담긴 보편적인 가치를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모두가 보편적으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그 보편성에 안도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 마땅한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에 부끄러운 마음을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 가르침의 현실을 나만 못 사는 것이 아니었어.’ 현실이… 그렇습니다. 좋은 가르침이고, 당연한 말씀이며,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남에게 내가 바라는 그대로 해 주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남이 해 주어야 하고 남들이 나에게 착한 일을 해 주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황금률의 반작용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보편적인 황금률뿐 아니라 종교적 윤리를 대하는 마음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 뺨을 때리면 나도 때립니다. 내 것을 가져가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탕 하나 더 주고, 뺨을 때리면 지갑도 내주며, 내 것을 가져가면 덤으로 더 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보편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주 보편적인 모습으로 그 보편성을 살지 못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 보니 옆 사람도 그렇습니다. 건너편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주 아주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교인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도 해 보라고, 잘 안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해 보라고, 잘 좀 해 보라고. 그렇습니다. 잘 안되는 거 아는데도 해보려 애쓰는 것이 보편적인(catholic) 신앙인의 보편적인 일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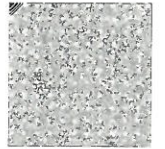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두 팔 벌린 예수님께서 할베 바위에게 자비로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베 바위는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꿇어앉아 그분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분을 닮아가려 애쓰는 우리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지 않을까요.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최주봉 요셉
서울가톨릭연극협회장

가장 큰 후원자는 하느님

서울가톨릭연극협회(서가연)는 가톨릭 신앙을 갖고 공연을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연극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 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노숙자들에게, 문화예술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동안 서가연이 무대에 올린 연극으로 톨스토이나 오 헨리, 찰스 디킨스의 작품뿐만 아니라 정하상, 임치백, 이성례 등 한국 순교자, 또는 김익진, 서상돈, 김수환 추기경 등 훌륭한 삶을 살았던 가톨릭 신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창작극과 특별한 전례시기나 신자 재교육을 위한 내용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거나 노인 요양시설, 노숙인 시설을 찾아 관객이 참여하는 즉흥극도 공연합니다. 작년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4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뮤지컬 <우리 벗아>, 연극 <마흔 번째 밤>, 콘서트 <스물두 번째 편지>, 인형극 <가회동 이야기>입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세상에 하느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노력한 결실들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겁니다. 후원해 준 지자체, 기업들,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 인쇄물을 무료로 제작해주신 분, 사무실 비용을 내주신 분 등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을 때맞춰 보내주신 하느님이 가장 큰 후원자이십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돈을 받기가 염치없고 부끄러울텐데 하느님 일을 한다는 생각에 돈 달라는 소리도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니까요. 후원금을 내주시

는 분들도, 재능을 봉헌하는 저희도요.

서가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정기적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하던 '찾아가는 공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공연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힘들게 가서 공연하다가도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분들을 보면, '그래, 이 맛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연을 하지.' 생각하며 행복해집니다.

회원들도 모두 열심히입니다. 연극이 혼자만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이런 단체도 회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협회 구성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 내어놓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니까 도움도 자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어여뻐 보아 주시는 것 같고요. 서가연이 앞으로도 공연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에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에게 신앙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활동을 계속 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한껏 묵상

너희가 되길하는
바를 그되로 너희도
되받을것이다

주가 6.38



류상에 아네스 수녀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7

창조론 = 무로부터의 창조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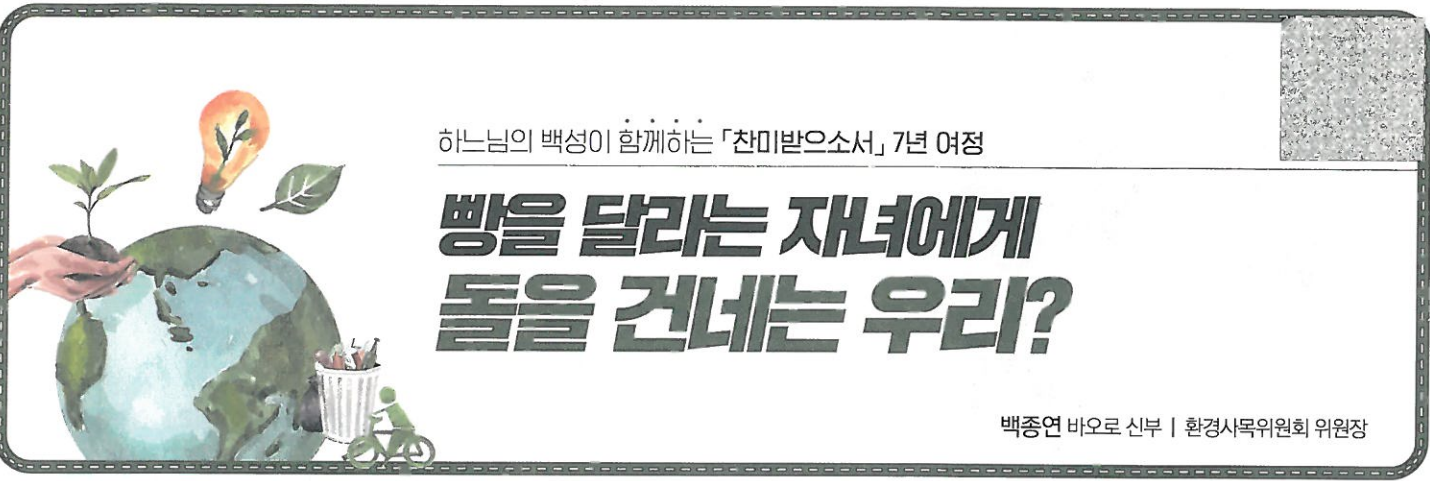
창조설화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고,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의 이유와 목적, 즉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마련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창조사건의 중심과 결정적 사건이 인간 창조라 증언합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 그런데, 하느님은 왜 하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아담’(Adam)의 뜻은 흙, 먼지...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시기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에 사제는 신자들 머리 위에 재를 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 3.19 참조) 하느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의 먼지로 빚은 인간 모양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아무것도 아닌) + 하느님의 숨(영, 정신, 이성)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숨’ 내지 ‘영’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느님을 닮은 점이고, 하느님과 소통 가능한 능력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주셨고, 언젠가 그 숨을 거두십니다. 하느님을 통해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었고, 하느님은 완전한 영, 즉 성령이십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영을 지닌 존재이기에, 모두 존엄하고 평등하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리스도교는 가르칩니다. ‘아담’은 흙을 의미하고, ‘하와’(Hawwah, 영어로는 ‘이브’ Eve)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할 때, 흙과 생명이 함께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온 세상과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 많은 이들이

묻고, 답합니다. 창조론은 창세기 내용처럼 온 우주와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이자 믿음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창세기 설명에 따라 세상이 창조, 발전되었다고 글자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반면 진화론은 세상 첫 시작이 우연히 발생했고, 이후 우주와 생명은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창조 과정은 물론 창조주의 존재도 부인하는 과학중심적이고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란 ‘원인과 결과’, 즉 인과율의 법칙이 중요한 학문인데, 진화론은 최초의 시작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비과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이성이 하느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과학이라는 그릇으로 뜨면 그릇에 담긴 물은 바닷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바다는 아닙니다. 물론 진화론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 진화론에 주목할만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창조주에 의한 세상 창조를 전제하지 않는 진화론은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진화론을 거부하며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적절하게 융합한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완성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하느님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이고, 이것이 구약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언제나 더 크신 하느님’(Deus semper major)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건네는 우리?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가 지구의 부르짖음에 제대로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 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이들을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태 25, 31-46 참조)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취약함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이 주제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한편,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빵을 폐기물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먹을 음식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 집 안에 유독가스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과 생명의 바탕이 되는 공동의 집 지구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쓰레기가 쌓여가는 세상을 만들면서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온실가스를 마구 뿜어내는 사회를 그저 지켜보면서 자녀를,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과 미래 세대의 몫인 지구의 자원까지 미리 약탈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찬미받으소서」 2항) 지구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가 되고, 특히, 자연에 기대어 사는 이들에게는 더 큰 해가 됩니다. (29항) 진정으로 공동의 집 지구와 다른 피조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작고 가난한 이들을 올바르게 돌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잔혹함은 언제나 어느 모로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92항) 미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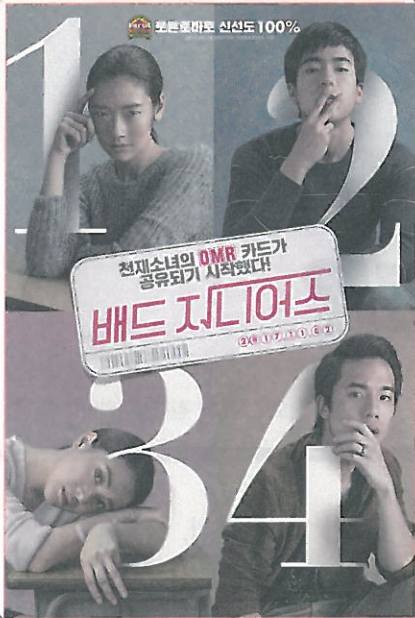
교황님께서 “부모들은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소비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162항)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 신앙인들이, 또한 우리 사회가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 방식을 만드는 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22항),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건네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마태 7, 9-11 참조) 우리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뽑으시겠습니까? 공동의 집을 돌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실행할 사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제대로 일하며 정치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 가난한 이들, 주님께서 돌보라고 맡기신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길입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영화 '배드 지니어스'

주님의 그물은 성긴 듯하지만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2017년 라운드 '나타온도' 표지 이미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거짓말과 속임수도 '치밀하고 교

활(cunning)'합니다. 남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태국 방콕의 타이판야고교에 다니는 여학생 린(추티몬 추앵차로엔수키잉 분)의 커닝 방식도 귀신을 속일 만큼 기발합니다. 수학 경시대회 1등의 천재적 지능을 가진 그녀는 피아노 건반을 치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용해 시험 시간에 24명의 급우들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들 중에는 단짝인 그레이스(에이사 호수완 분)와 부잣집 아들인 그녀의 남자친구 팻(티라돈 수파편핀오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재미나 우정으로 린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1인당 3천 바트(약 10만5천 원)를 받았습니니다. 피아노 교습비를 받은 것이라고 둘러대며 아버지의 웃도 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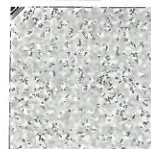
거짓과 속임수로 부정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아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 이혼한 아버지와 가난하게 사는 린도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 자발적이라면서 사실상 강제인 기부금,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고 교사들이 챙기는 불합리하고 부패한 학교를 탓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고 나의 재능으로 학비를 벌었다,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서로 이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틈없고 교묘한 속임수도 전교 1등을 다투는 남학생 뱅크(차논 산티네톤쿨 분)의 고발로 린의 부정행위는 들통이 납

니다. 장학금은 취소되고, 아버지는 "내가 널 잘못 키웠다."며 절망합니다. 여기서 나쁜 재능이 멈추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악(惡)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더 큰 악과 손을 잡습니다. 악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먼저 속이지 않으면 당하고 마는 것이 인생이야."라고.

악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늘 옆에 있는 선(善)에게 손을 뻗칩니다. 세탁소를 하는 홀어머니와 힘들게 살아가는 뱅크를 끌어들입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실력도 없으면서 미국 유학을 가야 하는 팻이 폭력배를 동원해 그를 절망의 상태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린과 뱅크가 함께 시차를 이용한 STIC(미국 유학 시험)의 커닝 작전을 벌입니다. 둘이 호주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 답을 외워서 휴대폰으로 4시간 늦게 시험을 보는 태국에 답안을 보내는 기발한 방법.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시도로 멋지게 성공하는 듯했지만 화장실을 오래 쓰는 뱅크를 의심한 다른 응시생들의 신고로 결국 발각되고 맙니다.

긴 인생을 남겨놓은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천재성을 선하게 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망치게 하는 나쁜 천재로 남을 것인가. <배드 지니어스>에서 "더럽게 버는 돈은 이제 나한테는 의미 없다."는 린과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뱅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짓말과 속임수, 부정과 악행이란 없습니다. 그 죄도 언젠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주님(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지만, 하나도 빠뜨림이 없다(天網恢恢 疏而不漏)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집, 야곱의 사다리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야곱은 어떤 곳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자다가 꿈에, 하늘에 닿아 있고 하느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층계를 보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그곳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은 자신이 서 있는 곳임도 깨달았습니다. 그가 꿈꾼 '이곳'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계단, 이 땅과 하늘을 결합하는 문이자 세계축(axis mundi)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싸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domus Dei)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porta caeli)이로구나."(창세 28,17) **성당을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성당의 원상을 처음으로 깨달은 이는 야곱이었고, 그것을 '하느님의 집' 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처음 말한 이도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엄청난 꿈을 층계, 집, 문, 기둥, 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모두 집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벽을 두르지도 않았는데 하느님께서 계신 그곳을 하느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합니다. 인간에게 집이 무엇이기야 야곱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감히 사람이 사는 집, 드나드는 문으로 말했을까요? 집이란 그만큼 인간에게 근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주변과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거룩한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창세 28,22)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성당이니 최초의 성당 건축가는 야곱입니다. 영어 성경에 기둥을 'a pillar'라 했는데, 이는 지붕을 받치는 똑바로 선 둥근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을 세우면 지붕을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수직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집을 짓는



야곱의 꿈 풍경(미하엘 엘리아, 1691)

건축 행위입니다. 꿈속에 야곱의 사다리로 나타난 하느님의 집이, 벽과 지붕으로 구축된 하느님의 집으로 이 땅 위에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벽은 사람들을 에워싸는 땅, 꼭 대기의 돔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하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기념 기둥을 세운 야곱처럼, 건축가들은 야곱의 사다리를 돌로 구축한 표현물인 성당을 무던히도 애써 지어왔습니다. 제대 위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빛은 다시 제대를 환하게 밝혀 줍니다. 이렇게 돌로 지어진 수많은 빛의 성당이 바로 오늘날의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기념 기둥을 세우고 그 고장의 이름을 루즈에서 '베텔(Bethel, beth El, house of God)', 곧 '하느님의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념 기둥을 세우니 고장도 하느님의 집이 되고 맙니다. 기념 기둥이 미치는 힘이 그토록 넓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당이 세워지면 주변의 땅 전체가 하느님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당은 이렇게 지역까지 하느님의 집으로 바꾸는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2월 22일 이우철 시몬 신부(69세)
- 2020년 2월 25일 최현묵 마태오 신부(40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교구청일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신청은 개인전: 1, 2전시실
전시일정: 2월23일(수)~28일(월)

서울대교구 사목 상담, 대침묵 피정
주제: 내면의 아이의 회복
때: 2022년 5월20일~22일(2박3일)
강사: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3월10일부터 매주(목)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3월3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문의: 02)727-2407, 2409

가톨릭 청소년들의 모임 가톨릭학생회 회원 모집
자녀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시나요? 자녀가 성당에 나왔으면 하시나요? 가톨릭학생회에 초대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앙 활동을 원하시나요? 주체적인 신앙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냉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톨릭학생회에 가입하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 모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라는 고유한 역할 수행을 돕고, 노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를 개설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5~7세의 손자녀를 둔 조부모, 120명
교육일시: 4월4일 · 11일 · 25일, 5월2일 · 9일, 16일 · 23일 · 30일 (월) 오전 10시~12시30분(총 8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교육내용: MBTI 검사와 작업, 손자녀 발달 이해와 공감, 자존감 키우기, 전해줄 신앙 이야기, 죽음 준비, 노후재정과 건강한 노년
회비: 9만원(MBTI 검사비 포함)
신청기간: 2월7일(월)~3월21일(월)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senior.catholic.or.kr>)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 02)727-2385, 2386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2월24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병원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073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3월7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윤성필 필립보, 이한상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07차 미사 2월2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 본당, 고원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월요성경 온라인회원 모집(사목국)
때: 1월3일~12월26일 매주(일) 오후 9시
온라인: 월성 회원 전용 밴드 라이브(대면 강의: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
내용: 신구약 전체 / 회비: 연회비 12만원
강사: 조창수 신부 / 010-7586-5425 황태라사(문자로 문의)

향심기도와 관상기도 침묵피정
때: 3월11일~13일, 4월4일~7일, 4월14일~17일, 4월22일~24일, 5월2일~5일, 5월20일~22일, 6월7일~10일, 6월17일~19일
그 외 소그룹 · 단체 / 당일 · 숙박 피정 가능
회비: 2박 15만원, 3박 20만원 / 지도: 김규웅 신부
곳: 용문청소년수련장 / 문의: 031)774-3587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살림 우리 아이 신앙교육은-일상 속에서의 신앙교육 / 강사: 박중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3월11일(금) 오전 10시~12시30분, 온라인비대면교육(리모트미팅) / 2월21일(월) 10시~3월3일(목)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충만한 삶을 향한 '사랑의 기쁨' 수업
대상: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때: 3월2일~4월20일 매주(수) 19시30분~21시(8주)
곳: 서울대교구청 501호
목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을 통해 신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랑, 혼인, 가정, 고통, 죽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고하며, 보다 충만한 삶을 위한 복음적 관점을 정립함
회비 없음 / 2월23일(수) 오후 5시까지 접수
문의(신청): 02)727-2351(선착순 30명) 생명위원회 사무국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천주교 농부학교 심화교육(도시농업전문가과정) 모집
대상: 농부학교 졸업생 및 도시농업기초과정 수료자(우선), 그 외 관심자 포함 35명
때: 3월29일(화)~6월21일(화) / 이론 매주(화) · 격주(목) 오후 7시 · 실습 매주(토) 오전 10시
곳: 이론_가톨릭회관(명동) 205-3호 / 실습_경기도 양평군 부용리 농사실습장
회비: 1인 29만원(이론 및 실습비,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비, 1인 10명 텃밭지원 포함)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
내용: 이론교육 18강좌(42시간), 농사실습 11회(42시간)
수료기준: 총 80시간 이수 및 시험성적 70점 이상시 농림수산식품부 인증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수료증 발급
문의(신청): 02)727-2277 / 3월15일(화)까지 선착순 접수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2 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2월14일(월)~3월1일(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7일~6월3일(매주), 명동교구청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7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35세 미만 청년), 직장인(일반신자) 성서못자리
때: 3월2일~6월8일(매주) 19시30분~21시(15주 강의)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마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권-동부 화요반 / 서부 목요반)
수강기간: 3월9일~6월16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7일~6월30일 / 회비: 10만원
수강방법: 에드워드ID와 비밀번호로 에드워드에 접속하여, 한학기 20강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강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인준단체 일람

모임

토아일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3월1일~31일까지 / 문의: 010-8874-7970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성경통독 모임(역사서)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6561-8835
때: 3월3일부터 매주(목) 19시30분 / 온·오프 병행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때, 곳: 2월25일(금)~28일(월)·3월11일(금)~14일(월)·3월25일(금)~28일(월), 도미니코수도회

서울대교구 젊은이 성령세미나(청년성령쇄신봉사회)

내용: 새 생활을 위한 성령 피정
때, 곳: 3월12일~13일,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회비: 3만5천원 / 문의: 010-4944-5149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DM): @ruah.fiat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 성모신심피정
내용: 강의·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2월21일(월) 오전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2) 청년셀 기도모임
때: 매주(금) 19시30분 / 대상: 미혼(35세 미만)
곳: 가톨릭회관 516호 / 문의: 010-6701-1013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쉽'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때: 3월6일~8일, 3월17일~19일, 3월26일~28일,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 완독	3월11일(금)~19일(토)	곳: 도미니코
말씀 피정	3월24일(목)~27일(일)	피정의집(주최, 황성)

사제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문의: 010-9944-0145 문경마원성지

1일코스-18km	매주(토) / 4명(선착순)	회비: 1만원(숙박 제공)
3일코스-70km	3월11일(금)~12일(토)	회비: 3만원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1차	4월22일(금)~30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 나눔, 올레길·오희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눈꽃산행 피정	2월26일~28일
자연순례 피정	3월5일~7일, 3월19일~21일
성지순례 피정	3월12일~15일, 3월26일~29일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r.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구, 기도모임)
내용: 말씀(영성교육)과 파견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3월6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성바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
내용: 마르코 복음 / 문의: 010-6287-9753
때: 3월3일(목)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곳: 성바로수도회 본원 / 회비 없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4월부터 1년 과정 11시~13시
(목) 신약 (금) 구약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수강생 모집 및 월례회
곳: 가톨릭회관 / 문의: 010-9590-4560, 010-5236-5493
1) 아카데미: 3월3일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2) 월례회: 매월 넷째주(월) / 1월·7월 휴회

가톨릭성서모임 성서사십주간 / 문의: 02)824-4363, 5
성서사십주간(신구약 성경 읽기 안내) / 온라인 강의(실시간):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www.biblemove.com) 참조

오전반	3월7일 매주(월) 10시~12시	회비: 5만원
저녁반	3월8일 매주(화) 20시~22시	(교재비 별도)

'예담영성' 기초 과정
곳: 가톨릭회관 202호 / 주1회·12주·1시간30분 교육
문의(접수): 02)472-3217(www.물이솟는샘.org / www.wellingspring.org) 가톨릭영성아카데미 물이솟는샘

1. 나의 하느님	3월14일(월) 10시30분	홍성만 신부
	3월16일(수) 19시	주수욱 신부

바로로말 헤화나무 아카데미 현장 및 온라인 강좌
문의(접수): 010-9759-0882 / 회비: 각 강좌당 15만원
온라인: 네이버 밴드 실시간 시청(이후 수시 시청 가능)

성 요한 바로로 2세의 몸의 신학	3월5일~4월23일 매주(토) 15시(8주간)	박은호 신부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3월8일~4월26일 매주(화) 19시(8주간)	전영준 신부
성숙한 신앙과 리더십을 위한 철학 산책	4월7일~6월9일 매주(목) 19시(8주간)	김이균 신부

가톨릭 다도회 불학기 회원 모집
내용: 다도와 인성 예절 교육
때, 곳: 3월14일~6월13일 매주(월) 14시~16시, 교육장(인사동) / 문의: 010-6618-1313, 010-8912-2640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치-교황문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곳: 3월11일~6월10일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총13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사무실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 문의: 043)270-0100, 0101
원서접수: 2월22일(화)~27일(일)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예수회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좌(사전 녹화본)
3월 개강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동안 수강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매주(월)	권오면 신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매주(수)	홍기영 교수
성경대학-요한복음 1 2 3	매주(수)	송봉모 신부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매주(목)	이규성 신부

2022년도 1학기 바로로 성서 모임
모든 강의 대면·비대면 선택 가능(접종완료자만 대면접수 가능)
회비: 7만원 / 계좌: 우리 1005-002-67612 (재)셀룰수도원
문의(접수): 010-9966-6021 살트르 성바로 교육관

3월7일 (월) 10시~12시	역사서	김요탈리아수녀
3월7일 (월) 14시~16시	미술사와 함께 걸어보는 세계교회사	이 안젤라 수녀
3월8일 (화) 10시~12시	탈출기-신명기	김에스메리수녀
3월2일 (수) 10시~12시	공관복음	이 안젤라 수녀
3월3일 (목) 10시~12시	바로로 서간	윤 바실리아수녀

32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2년 과정) 모집
문의: 010-4495-7764 영성의 집, 010-2037-9262 본원
3월 개강 / 주최: 전교가르멜 수녀회 영성의 집·본원

영성의 집	대면	둘째·넷째주(화) 10시~12시30분
		둘째·넷째주(화) 19시30분~21시30분
		둘째·넷째주(목) 10시~12시30분
본원	비대면	둘째·넷째주(목) 14시20분~16시30분
		첫째·셋째주(수) 10시~12시
		둘째·넷째주(수) 20시~21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문의: 010-7795-6409
국악가·대금 소금 단소 생활음악악기-팬플룻	(목)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30분,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동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 아이리시틴휘슬	시, 18시~20시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신입생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오르프'와 함께하는 씬,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3월15일~4월5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가톨릭대학교 2022년 학점은행제 수강 모집

학점은행제: 가톨릭신학(영성신학·구약성서입문·기초신학·라틴어 등), 심리학전공(발달심리·상담심리학·성격심리학·심리학개론 등)
 곳: 가톨릭대학교 / 문의: 02)2164-6587 성심·성의
 개강: 3월21일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참조

2022년 상장례 연도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대상: 본당 또는 관련단체에서 연도전문강사로 활동하실 분 / 회비: 각 학기당 26만원
 내용: 상장예식, 상장례성음악, 연도이론과 가창
 교육기간: 1년 과정(1학기과 2학기로 진행)
 때: 3월(목) 19시~20시30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010-3211-8941 연구간사(가톨릭 상장례음악연구소)

모집

아퀴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합창단(담당: 최호영신부)이 사순묵상음악회(C. 프랑크의 가상칠연, 4월 초 예정)를 함께 할 단원(각 파트 약간명)을 찾습니다 / 문의: 010-6807-2704 부단장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레미사 / 문의: 02)727-2056
 때: 2월23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2월25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2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2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레미사
 때, 곳: 2월21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월레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2월28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레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3월2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2월27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인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꼬메스심리상담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 / 가족, 부부, 갈등, 심리불안·대면·온라인·전화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예수회 하늘사랑·하늘마음 모임

상실의 아픔과 슬픔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대상: 사랑하는 이를 사별하신 분
 곳: 예수회센터(서강대학교 인근)
 문의: 02)3276-7705 / 상시 접수 중, 전화 문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일: 강의 3월3일부터 매주(목) 10시~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금요일: 비대면 온라인 강의(Zoom) 3월4일부터 매주(금) 14주, 치유적 강의 및 훈련 10시~13시
나의인생이야기-전생애 발달심리학의 이해와 중년기(과거·현재·미래)	3월18일~4월15일 매주(금) 10시~17시(5주)

직업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꾸르실로회관 직원 모집 / 문의: 02)337-8588

분야: 주방장, 미화, 시설관리 보조 각 1명(계약직)
 대상: 세레받은 분, 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주임 신부님 추천서 /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청소년국 유아부 유아축직 대체 직원 모집(연구직)

소속·급여지급: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인원: 2명
 대상: 유아교육관련 학과 졸업자, 세레받은 지 3년 이상, 컴퓨터 활용가능한 자 / 문의: 02)727-2111, 2115
 근무시작일: 4월4일 / 서류·근무기간: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가톨릭 유아교육기관-채용 정보확인)
 3월4일(금)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별관 4층 유아부) 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레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2월27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공릉동성당 관리장(방호원) 모집

인원: 관리장(계약직 방호원) 1명 / 대상: 세레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방화관리 및 시설물관리 자격증,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소방·전기·설비 유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3월13일(일)까지 우편·방문(우 0184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92길 57 공릉동성당) 및 이메일(emo@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인원: 정규직 1명 / 문의: 02)742-4151
 업무내용: 가톨릭학생회(중·고등학교) 활동 지원 및 교재 연구 / 근무: 주5일 (화)~(토) 9시~18시(일·월 휴무)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 대상: 세레받은 대졸자 이상(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응시 제한)
 2월18일(금)~3월4일(금) 18시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우편은 3월4일 18시 도착분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3월5일(토)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일정 관련 개별 연락
 자세한 내용은 학교사목부 홈페이지(www.kycc.or.kr) 참조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일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2월27일(일) 14시	잠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의방선교회	3월6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시노드란...?

그리스어 Synodus는 ‘함께, 같은 장소, 동시에’란 뜻을 가진 희랍어에서 온 단어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성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식별하고, 결정하는 시노드정신에 따라 예수님이 걸어간 사명을 계속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늘어나고 지역이 넓어지면서 서로의 생각과 뜻을 나누고 한데 모으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묵혀온 문제들인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양극화 현상과 기수, 생태문제,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의 불평등, 난민, 이주민들로 인한 갈등 등, 더욱 도드라진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시노드 형식인 주교회의에서 의논, 결정해서 지역교구와 교구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대교회의 본질은 ‘함께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의 정신’에 따라 세상의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식별하고, 결정하는 시노드정신을 구현코자 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세례 받음을 통해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직분을 받았고 이런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의 특별한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친교를 이루게 하는 성령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앙감각’이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의 신앙감각은 성직자들은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배우기만 하라는 낡은 생각을 배척하고 각 신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고하게 지키는 ‘내적감각’을 통해 시노드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시노드 정신, 즉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본질이며 무엇보다 상호경청과 식별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상호경청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이를 식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한 여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신앙인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노드는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으로의 여정’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행하여 온 교회 본질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까지의 보편 교회에서 지역교회로 결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두드러진 교회와 사회의 현안 문제를 각 지역교구에서 시노드 정신에 따라, 마음을 다해 함께 성찰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식별하면서 성교회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서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듣고 나누기

1. 여정의 동반자 :

공동체 일원으로서 단체 활동과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봉사하면서 힘들었던 일,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봉사자로서의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경청 :

우리 구역, 반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당 운영에 있어서 신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나요?
상호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기에 방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3. 말하기 :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져 결실을 맺었다고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4. 거행 :

미사 안에서 기쁨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분심이 든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도덕적, 윤리적 행동 판단에 하느님 말씀, 가톨릭 교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5.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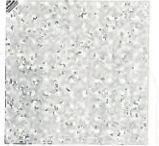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와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교회의 대사회적 참여 및 활동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나, 좋은 방법
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6. 권한과 참여 :

우리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성당 활동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의 주인의식과 책임자라는 소명감을 갖고 계신가요? 본당 사목회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본당 내 여러 분과 및 단체의 단체장은 이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또 행사하고 있나요?

7. 식별과 결정 :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기도를 통하여 내린 결정과 본인 의지로 내린 결정의 결과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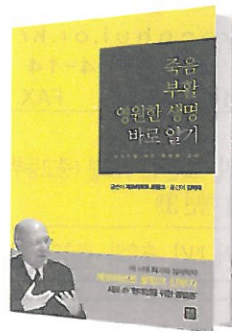


신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나시오식 12주 일상 피정

요셉 A 테틀로우 SJ·카탈아트웰 애글스 지음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268쪽
1만5천원 | 문의: 02)3276-7799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했던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더해, 매일의 기도를 실천적으로 돕는 설명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기도의 반복을 활용하여, 현대인이 삶의 기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신간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
생활성서사 | 416쪽 | 2만5천원
문의: 02)945-5987

성경과 그리스도 신앙 전통,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유와 인간 이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표면적이고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현대인에게 죽음과 부활, 영혼 불멸과 심판, 영원한 생명과 연옥-지옥, 그리고 피조물의 완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신간

만화로 만나는 신비 이야기
묵주기도

진 루엔 양 지음
소당북스 | 55쪽 | 6천원
문의: 010-8405-0212

미국에서 주목받는 만화작가 진 루엔 양(Gene Luen Yang)의 묵주기도 만화를 번역한 책이다.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에 담긴 20가지 신비를 만화 형식으로 이야기처럼 풀어냈다. 어린이 주일학교 교리뿐 아니라 성인 예비자 교리에 활용하기 좋은 책이다.



신간

지혜 여정 신약3 사도행전

한재호 지음
생활성서사 | 16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한 사도행전의 지적이고 영적인 성경 공부 안내서이다. 사도행전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며 그룹 공부는 물론 혼자서도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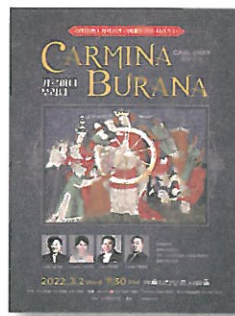


신간

마카베오기 하권

이진수 지음
바오로딸 | 204쪽 | 1만9천원
문의: 02)944-0944

마카베오기 하권은 주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상권과 다른데 예루살렘 성전을 신학적 중심으로 삼아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며 순교신학, 부활과 대속 사상,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천사의 등장 등 그리스도교 신학의 모티브들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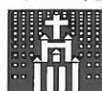
연주회

국립합창단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2)580-1300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
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초, 중, 고, 대학생 30% 할인 본인만 가능, 중빙서
류 미자참 시 현장에서 차액 지불)

20세기 독일의 현대음악 작곡가 칼 오르프의 대작 <카르미나 부라나>가 오는 3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된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구현한 이 작품은, 칼 오르프만의 독창적 음악 양식을 통해 운명의 위대함을 강렬하고 장엄하게 표현하였다.

제221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시노드 주제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 ▶ ‘시노드’(Synod)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킵니다.
- ▶ 본당 시노드 계획
 - 본당 시노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 신자에게 시노드관련 영상자료를 보여드립니다.
- ☞ 일시 : 2월 19일(토) 18시미사부터
2월 20일(주일) 미사 강론 시간

◎ 성체조배 안내

곧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만큼이나 영적 목마름도 깊어지고 있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소 : 대성전
시간 : 매 주 목요일 10시 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안내

오는 3월 2일(수)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매 미사 중에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단식, 금육).

◎ 성지 회수

2월 27일(주일)까지 성전입구, 사무실입구에 있는 성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4일(금)~4월 8일(금)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 4월 15일(금) 오후 3시

◎ 성모 신심 미사 : 3월 5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3월 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유아세례 : 3월 6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학교 개학미사

-초등부 : 3월 5일(토) 오후 3시
-반디/중고등부 : 3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2022년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반 모집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첫모임 : 3월 5일(토) 어린이 미사 후 / 304호
접수 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대표봉사자 (010-2561-4773)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2. 1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84	593 (28.5%)	500 (24.0%)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책정한 세대는 2021년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13,853,400원

◎ 감사헌금 (2월 7일~13일)

김정탁삼만원 박명숙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6주일)

교무금 8,707,000원
주일헌금 4,412,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921,000원